연예계 컬래버레이션 바람이 분다

'눈덩이 프로젝트'·'세모방' 등
다양한 콘텐츠·빠른진행 가능
제작사 간 협업으로 윈윈전략

최근 연예계에서 유행하는 컬래버레이션(이하 콜라보) 프로젝트는 결국 더 참신한 콘텐츠를 찾기 위한 몸부림 중 하나다.

최근 전략적 제휴를 맺은 SM엔터테인먼트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가 첫 프로젝트로 선보인 엠넷 음악 예능 '눈덩이 프로젝트'부터 YG엔터테인먼트가 중소기획사에 문을 열겠다고 선언한 오디션 프로그램, 국내외 방송국 간 협업 프로그램인 MBC TV '세모방-세상의 모든 방송'까지 형식은 다르지만 목적은 '실리'라고 입을 모은다.

'눈덩이 프로젝트'는 서로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미스틱의 대표 프로듀서 윤종신과 SM의 싱어송라이터 헨리가 뭉쳐 새로운 곡을 탄생시키는 내용이다. 가수로는 미스틱의 박재정과 SM의 NCT 마크가 참여했다.

윤종신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콜라보는 서로 완전히 달라야 한다. 미스틱과 SM은 콘텐츠를 바라보는 시각도, 생산하는 방식도 정말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가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후속 스타 오디션 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대거 출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YG엔터테인먼트는 준비 중인 프로그램에서 중소기획사에게도 문을 개방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올해 MBC에서 YG 이사로 이적한 조서윤 PD는 9일 통화에서 "내부의 자원만으로 하면 인력과 콘셉트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더 큰 스펙트럼에서 준비하기 위해 호흡이 맞는 기획사들이 함께하는 건 좋은 시도 같다"고 말했다.

MBC '세모방'은 스케일이 더 크다. 국내외를 넘나들며 다양한 방송사를 찾아 합작을 시도해 호평받고 있다.

방송한 지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지만 국내 1인 낚시 방송부터 몽골, 캄보디아 예능까지 섭렵하며 신선하다는 반응을 끌어냈다.

최민근 PD와 공동연출을 맡은 김명진 PD는 통화에서 "요새 방송국은 서열이 없다. 실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콘텐츠가 좋은데 알려지지 못한 방송을 소개하는 의미도 있다. 여러모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연예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 콜라보 프로젝트가 트렌드처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스틱의 여운혁 PD와 함께 '눈덩이 프로젝트'의 연출을 맡은 SM의 이예지 PD는 "방송국이 아닌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주도적으로 콜라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더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오고 진행도 빠른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기획사 간 콜라보 프로젝트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콜라보 프로젝트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은 맞지만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기에는 여전히 장벽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조서윤 PD는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스펙트럼을 넓히는 차원에서 콜라보를 하기에 적합하지만 다른 분야까지 확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며 "쟁쟁한 기획사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출연자 교류 정도 이상의 시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중국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마음이 맞는 기획사끼리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한쪽이 펀딩을 한쪽이 출연자를 내보내는 방식이 확산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프로듀스101'·'눈덩이 프로젝트'·'세모방' (위쪽부터)

보검·효리 보다 박명수 몸개그

'무한도전 - 진짜 사나이편' 재정비 후 최고 시청률

박보검, 김수현, 이효리보다도 박명수의 '생고생'이 더 강력했다.

MBC TV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진짜사나이' 특집이 박명수의 활약 속에 재정비 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무한도전'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14.5%, 수도권 평균 시청률은 16%를 기록했다. 7주간의 재정비를 끝내고 지난 3월 18일 복귀한 후 최고 성적이다.

'무한도전'은 재정비 후 최근 배우 박보검, 김수현, 가수 이효리 등 '특급 게스트'들을 연이어 초대해 눈길을 끌었지만, 시청률은 10% 초반대에 머물러 왔다.

전날 '진짜사나이' 특집에는 바캉스에 가는 줄 알았다가 입대하게 된 멤버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가 담겼다.

특히 박명수는 점호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진땀을 흘리고, 훈련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안겼다.

동시간대 SBS TV '주먹쥐고 뱃고동'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1부 4.3%, 2부 5%를, KBS 2TV '불후의 명곡'은 1부 7%, 8.8%로 집계됐다.

한편, 밤 시간대 방송한 tvN 예능 'SNL 코리아' 시즌9은 호스트 박수홍의 열연 속에 시즌 자체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클러버'로 변신한 박수홍의 디제잉으로 시작한 전날 방송의 평균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은 2.3%, 순간 최고 시청률은 3.5%로 집계됐다.

박수홍은 '3분 내새끼' 코너에서 철없는 아들 역할로 등장, 김민교와 모자지간을 연기해 눈길을 끌었으며 신동엽과는 '이홍렬 쇼'를 그대로 재연해 웃음을 안겼다.

'SNL9'은 한 주간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호스트 레드벨벳과 함께 돌아온다. /연합뉴스

'스파이더맨 : 홈커밍' 300만 관객 돌파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 홈커밍'이 개봉 5일째인 9일 누적 관객 300만 명을 돌파했다.

배급사 소니픽쳐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 홈커밍'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관객 수 300만8천999명을 기록하면서 개봉 5일째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개봉작 중 최단 시간 내 300만 돌파 기록을 달성한 것이며, 역대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이다.

특히 지난 8일 기록한 일일 관객 수 109만 8천508명은 올해 개봉작 중 최고의 기록이며, 역대 개봉 영화 중 9위의 기록이라고 배급사 측은 전했다.

'스파이더맨 : 홈커밍'은 '아이언맨'에게 발탁된 15세 소년 '스파이더맨'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 벌처에 맞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레이트 지리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쌈,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7 서울 국제 유스 양궁 페스타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2 55 응까 소나타 2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똑! 키즈스쿨 55 지오메카	00 뉴스브리핑
3	10 미래기획 20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며느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별며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쌈,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찰스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 천국의 섬 바타네스〉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까몬의 팟타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욘드 (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이 보다 좋을 수 없다 태국 - 물위의 사람들〉
21:30 한국기행 〈인생은 로드무비 - 정처없는 이 발길〉
21:50 EBS 다큐 프라임 〈생명의 해류 2000km - 지구의 동맥 적도해류〉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닥3〉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음 윤5월 17일 戊戌)

子 48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60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단계이다. 72년생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용의 입장에 서는 것이 맞다. 84년생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행하라. 행운의 숫자 : 53, 16

丑 49년생 파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시급한 때이다. 61년생 깊은 의미가 상징적으로 함축되어 있느니라. 73년생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으려는 격이다. 85년생 해악이 예상되면 깔끔하게 제거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0, 10

寅 50년생 틀리지 않게 잘 보고 조처하자. 62년생 겉은 거칠더라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느니라. 74년생 모든 일을 차치하고 황급히 서둘러서야 할 때다. 86년생 탐탁스럽지 않더라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67, 39

卯 51년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다. 63년생 냉철하게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75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87년생 과잉 집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다. 행운의 숫자 : 06, 32

辰 52년생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용기가 절실히 요청된다. 64년생 가는 것에 비례해서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니라. 76년생 아무리 힘들더라도 원칙을 따르는 것이 생산적이다. 88년생 과도함은 속히 청산하라. 행운의 숫자 : 61, 17

巳 53년생 목적 달성은 하겠지만 실효성이 약해질 수도 있느니라. 65년생 느낌으로 판단하다가는 실수하리라. 77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이다. 89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3, 31

午 42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보라. 54년생 좋은 말은 원래 듣기에 거북한 법이다. 66년생 인식한 예감과 실제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라. 78년생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수순에 와 있다. 90년생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라. 행운의 숫자 : 82, 90

未 43년생 체계적이어야만 한다. 55년생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낫다. 67년생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함이 순리이다. 79년생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가 보인다. 91년생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94, 05

申 44년생 지리멸렬한 소강상태의 기간을 지나서 활성화되리라. 56년생 위험 부담을 안을 이유는 없다. 68년생 노후 되었다면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80년생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78, 05

酉 45년생 개별 판단이 요구되는 면모이다. 57년생 유능한 인재를 만나거나 우수한 제품을 접하리라. 69년생 맹점을 보완했을 때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1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따로따로 대처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35

戌 46년생 기대치와 동떨어져 있어서 결과에 허무할 수도 있다. 58년생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70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82년생 해답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대국이다. 행운의 숫자 : 87, 42

亥 47년생 한 곳만을 보지 말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자. 59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71년생 소신을 갖고 일관되게 진행하여야 결실을 맺는다. 83년생 원인을 잘 헤아려 보면 충분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5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